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 - 개인적 특성 및 입학전형요소를 중심으로 -

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교육실

박귀화 · 홍두호 · 오재환 · 박이병 · 신동진 · 이영돈

= Abstract =

### The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at Gachon Medical School

Kwi Hwa Park, MA, Du Ho Hong, MD, Jae Hwan Oh, MD,  
Yi Byoung Park, MD, Dong Jin Shin, MD, Young Don Lee,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first year medical students at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i.e. age, gender, and academic degree types (bachelors/masters), field of major (biology/non-biology), and admission variables (i.e. MEET, GPA, attitude, interview, and English test).

**Methods:** The admission scor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ere obtained from 39 students who had entered the university in 2005.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Correlations between admission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s were examined whi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cipher the influence of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admission variabl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Results:** This study showed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degree level, age, and field of study, but not gender. It was also found that both the Nature Science Reasoning (NSR) of MEET subscale score and GPA sco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irst year students. Attitude, interview, and English test scores did not correlate significantly.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NSR 1 and 2, field of major, and age accounted for a substantial amount of the variance in academic achievement.

**Conclusion:** Students with higher scores in NSR 1 and 2 who majored in biology-related fields and who are younger tend to do better academically in their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to graduate medical schools in designing effective admissions strategies for recruiting students, as well as, in planning the curriculum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medical students.

---

**Key Words:** MEET, Academic achievement, Admission, Medical student

## 서 론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제도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양은배, 2001). 그 동안 의료계, 의학계 및 교육계 등의 지속적인 제안과 검토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법학전문대학원 추진계획안을 내놓았고, 의학입문자격시험(Medical Education Eligible Test)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의학전문대학원추진연구단, 2003). 이에 2003년도에 전국 41개의과대학 중 4개 의과대학을 필두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이뤄졌으며, 2005학년부터 이들 대학은 4년제 학사학위 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가 현재와 미래에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 의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해 내는 것이라면, 의과대학 학생선발의 목적은 의과대학생으로서의 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여 미래에 좋은 의사를 만드는 동시에 전문성에 불명예를 초래하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Lumsden et al, 2005). 무엇보다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한 보다 성숙한 성인교육자라는 점과 기존의 의학입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예과 과정 없이 바로 의학 전공 학습을 수행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의학적 기초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학생 선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의과대학 뿐 아니라 치과대학에서는 학사편입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왔으며(이유철 외, 2003; 한운섭, 1999), 이들의 의과대학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를 통해 편입한 학생들의 성적이 의학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다소 좋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이유철 외, 2003). 그러나 학사편입제도와는 달리 의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학제의 도입이며,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입문검사(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선발방법에서 학사편입제도

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처럼 새로운 선발방법을 적용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과연 전문대학원의 학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5학년도 첫 입시를 치룬 4개 대학은 전형요소에서 그 적용비율은 다르지만, MEET 점수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생물, 화학 등의 선수과목 이수학점, 대학에서의 평균학점(Grade Point Average), 공인영어성적, 구술면접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박귀화, 2004). 학생선발 점수는 입학 후 학업 이수과정 뿐 아니라 졸업 후의 유능한 의업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Geffen, 1991; James & Chilvers, 2001), 각 전형요소들이 적절한 예언을 해 주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학생선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입학 전형 요소와 입학 후 기초의학과정인 1학년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위 수준, 전공 계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와 개인적 특성 및 입학전형요소 중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학년도에 입학한 가천의과대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학생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위 수준(학사, 석사이상), 대학에서의 전공계열(생물계열, 비생물계열)로 구분하였다(Table I). 학생들의 연령은 평균 연령인 27세를 기준으로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남학생은 16명, 여학생은 23명, 연령은 27세 미만인 20명, 27세 이상이 19명, 학사 학위 34명, 석사 학위 이상은 5명, 생물계열 전공은 22명, 비생물계열 전공은 17명이었다.

**나. 조사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중 개인적 특성은 학생들의 성별, 연령, 학위 수준, 대학 전공계열로 구분하였고, 입학전형요소의 점수는 연구대상의 입학 당시 MEET 점수(언어 추론, 자연과학 추론 1(생물학), 자연과학 추론 2(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통계학)), 공인영어성적(TOEFL, TOEIC, TEPS), 전공적성 점수, 심층면접 점수, 학부에서의 GPA를 사용하였다.

**Table 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Variables                   |             | No (%)  |
|-----------------------------|-------------|---------|
| Gender                      | Male        | 16 (41) |
|                             | Female      | 23 (59) |
| Age                         | <27yrs      | 20 (51) |
|                             | ≥27yrs      | 19 (49) |
| Academic degree             | Bachelors   | 34 (87) |
|                             | Masters     | 5 (13)  |
| Area of study at university | Biology     | 22 (56) |
|                             | Non-biology | 17 (44) |

학업성취도는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얻은 1학기, 2학기 및 1학년 전체에 대한 각각의 GPA를 사용하였다.

**다. 자료 분석**

첫째,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위수준, 전공계열별로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r을 구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 및 입학전형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1학년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

Table II에서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위수준, 학부 전공계열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 학위수준, 학부 전공계열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II.**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s According to Student Characteristics

| Student characteristics |             | First semester achievement |     |        | Second semester achievement |     |        | Total achievement |     |        |
|-------------------------|-------------|----------------------------|-----|--------|-----------------------------|-----|--------|-------------------|-----|--------|
|                         |             | M                          | SD  | t      | M                           | SD  | t      | M                 | SD  | t      |
| Gender                  | Male        | 2.94                       | .68 | -.04   | 2.88                        | .63 | -.39   | 2.91              | .63 | -.20   |
|                         | Female      | 2.95                       | .74 |        | 2.95                        | .58 |        | 2.95              | .65 |        |
| Age                     | <27yrs      | 3.61                       | .74 | 1.96   | 3.11                        | .66 | 2.13*  | 3.14              | .69 | 2.12*  |
|                         | ≥27yrs      | 2.73                       | .61 |        | 2.72                        | .45 |        | 2.73              | .49 |        |
| Academic degree         | Bachelors   | 3.04                       | .68 | 2.07*  | 2.99                        | .60 | 3.71** | 3.02              | .62 | 2.16*  |
|                         | Masters     | 2.36                       | .63 |        | 2.43                        | .25 |        | 2.39              | .40 |        |
| Major field             | Biology     | 3.23                       | .57 | 3.13** | 3.15                        | .50 | 2.94** | 3.19              | .52 | 3.18** |
|                         | Non-biology | 2.59                       | .71 |        | 2.63                        | .59 |        | 2.61              | .63 |        |

\* p<.05, \*\* p<.01

연령 (27세 미만/27세 이상)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차이 검증의 결과, 2학기 성적 ( $t(37)=2.13, p < .05$ )과 1학년 전체성적 ( $t(37)=2.12, p < .05$ )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위 (학사/석사 이상)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에 대한 차이 검증의 결과, 1학기 성적 ( $t(37)=2.07, p < .05$ ), 2학기 성적 ( $t(37)=3.71, p < .01$ ), 1학년 전체성적 ( $t(37)=2.16, p < .05$ )에서 학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사 출신 학생이 석사 이상 출신의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 (생물/비생물)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차이 검증의 결과, 1학기 성적 ( $t(37)=3.13, p < .01$ ), 2학기 성적 ( $t(37)=2.94, p < .01$ ), 1학년 전체성적 ( $t(37)=3.18, p < .01$ )에서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부 전공이 생물계열인 경우 비생물계열인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 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소와 입학 후 학업성취도와의 상호상관

Table III에서처럼 의학전문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1학기, 2학기, 1학년 전체)는 MEET의 하위 영역 중 자연과학추론 1, 자연과학추론 2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 $r=.36-.65, p < .05-.01$ ), 학부 GPA 점수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r=.50-.58, p < .01$ ).

1학기 및 2학기 학업성취도는 각각 1학년 전체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 $r=.87-.97, p < .01$ ), MEET의 하위 영역인 언어추론과 자연과학 추론 1 ( $r=.45, p < .01$ ), 자연과학추론 1과 자연과학 추론 2 ( $r=.42, p < .01$ )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EET의 하위 영역 중 자연과학추론 1, 자연과학추론 2 점수는 학부 GPA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

**Table III.** Inter-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 Variables            | Academic achievement |                 |       | Admissions variables |       |       |              |           |          |       |
|----------------------|----------------------|-----------------|-------|----------------------|-------|-------|--------------|-----------|----------|-------|
|                      | First semester       | Second semester | Total | MEET                 |       | GPA   | English test | Interview | Aptitude |       |
|                      |                      |                 |       | VR                   | NSR 1 |       |              |           |          | NSR 2 |
| Academic achievement | First semester       | -               |       |                      |       |       |              |           |          |       |
|                      | Second semester      | .87**           | -     |                      |       |       |              |           |          |       |
|                      | Total                | .97**           | .96** | -                    |       |       |              |           |          |       |
| Admissions variables | VR                   | .18             | .39*  | .28                  | -     |       |              |           |          |       |
|                      | MEET NSR 1           | .59**           | .65** | .64**                | .45** | -     |              |           |          |       |
|                      | NSR 2                | .51**           | .36*  | .46**                | .13   | .42** | -            |           |          |       |
|                      | GPA                  | .58**           | .50** | .57**                | .16   | .43** | .49**        | -         |          |       |
|                      | English test         | .31             | .24   | .29                  | -.01  | .27   | .15          | .33*      | -        |       |
|                      | Interview            | -.13            | -.18  | -.16                 | .03   | -.09  | -.22         | -.10      | -.11     | -     |
|                      | Aptitude             | -.10            | -.23  | -.17                 | .10   | .02   | .41**        | -.03      | -.32*    | -.03  |

\*  $p < .05$ , \*\*  $p < .01$

VR: Verbal Reasoning, NSR 1: Nature Science Reasoning 1 (Biology),

NSR 2: Nature Science Reasoning 2 (Gener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General physics, Statistics)

**Table IV.**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Year

| Dependent Variable   | Predictors  | B    | SE B | $\beta$ | t       | $\Delta R^2$ | R <sup>2</sup> |
|----------------------|-------------|------|------|---------|---------|--------------|----------------|
| Academic achievement | (Constant)  | 1.34 | .60  |         | 2.23*   |              |                |
|                      | NSR 1       | .02  | .01  | .32     | 2.97**  | .41          |                |
|                      | Major field | .54  | .12  | .43     | 4.61*** | .15          | .74            |
|                      | NSR 2       | .03  | .01  | .49     | 4.50*** | .11          |                |
|                      | Age         | -.06 | .02  | -.30    | -3.02** | .07          |                |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 $r=.43-.49, p<.01$ ), 자연과학 추론 2는 전공적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r=.41, p<.01$ ). 공인영어성적과 학부 GPA 점수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 $r=.33, p<.01$ ), 공인영어성적과 전공적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r=-.32, p<.05$ ).

반면, 면접점수와 전공적성은 학업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공인영어성적도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이 학업성취를 얼마나 설명해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입학전형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 범주형 자료는 연속형 자료로 변환한 가변인 (dummy variable)을 사용하였다 (양병화, 1998).

1학년 학업성취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는 자연과학추론 1, 학부 전공계열, 자연과학추론 2, 연령이 선택되었으며, 이러한 변인이 학업성취의 전체 변량 중 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4,34)=23.56, p<.001$ ). 즉, MEET의 하위영역인 자연과학추론 1, 자연과학추론 2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 전공이 생물계열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를 더 높게 예언해 줄을 알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의 학업성취도분석을 위해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입학전형요소와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주는 변인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전문대학원 학업성취도 (1학기, 2학기, 전체)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위수준, 연령,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학사 졸업자이고, 연령이 낮고, 학부 전공이 생물계열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차이에 있어서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덕선 외 (200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성적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대학 4년간의 총평점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평점만을 비교한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대체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우수하다는 결과 (김하원 외, 2002; 심우엽, 1992; 허명희·전성연, 1996)를 보이는데, Peng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임상 이전 과정의 학업성취도는 성별에 무관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남녀학생 모두는 학부를 졸업한 성인 학습자로서 장애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가 높기 때문에 (Geffen, 1991),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학위 수준과 연령에 있어서는 학위가 높을수록

연령도 높은 편이어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에서의 집중도와 피로도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Ramsbottom-Lucier et al.(1995), Hesser & Lewis (1992) 등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Clercq et al.(2001)도 대학원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거나 (James & Chilvers, 2001), 연령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학년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Kay-Lambkin, 2002), 임상의학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은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하여 (Weinberg & Rooney, 1973),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부 전공이 생물계열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지만, Kay-Lambkin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이전의 전공과 1학년의 학업 수행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수련의의 수행에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고 (Grey et al, 2001), 인문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이 과학계열을 전공한 학생들보다 학업수행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Smith, 1998)는 보고들도 있다. 이와 달리 김하원 등 (2002)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자연과학이나 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의예과 1학년에서 배우는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수학 등의 과목에서 유리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의예과 2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과목들을 수강할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도 MEET 점수가 높고, 생물계열 출신이 이미 보다 많은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 기초과학을 학습하는 데에 약간 유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배우지 않았던 임상의학 과목들을 수강하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의학전문대학원 학업성취도 (1학년 1학기, 2

학기, 전체)는 입학전형요소 중 MEET의 하위영역인 자연과학 추론 1, 2와는 .36-.65의 범위로, 학부 GPA 점수와는 .50-.58의 범위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인성 및 지성영역에 대해 3명의 면접위원이 각 15분씩 심층질문을 하고, 에세이 작성, MMPI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학업성취도와 심층면접점수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및 캐나다의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치르는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의 경우에도 이 점수가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Colliver et al, 1989; Jones & Thomae-Forgues, 1984). 그리고 의과대학 입학 전의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부에서의 GPA가 의과대학의 학업성취 및 성공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 (Hall, 1992; Weiss et al, 1988; Montague et al, 1990)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면접 점수는 생리학을 제외하고는 1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Rahbar et al. (2001)의 연구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면접시험 점수가 낮을수록 1학년 2학기과 2학년 2학기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는 김하원 외 (2002)의 연구들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면접은 입학전형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좋은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개인의 인성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긍정적인 선발 요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Collins et al, 1995; Glick, 1994; VenSusteren et al, 1999), 면접 성적은 기초의학 과목보다는 대인 관계, 공감, 동정심 등 학업 성취와는 다른 임상 수행 능력을 훨씬 더 잘 예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Meredith et al, 1982; Rahbar et al, 2001), 입시전형 단계에서 그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을 잘 모색하여 학생선발에 유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의 교육목표 중 하나인 “마음이 따뜻한 의사” 양성을 위해 학생 선발에서부터 이러한 소양을 겸비한 학생 선발 기준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각종 종교·사회단체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 의료관련 인접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교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등은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어 전공적성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적성 점수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전공적성에서 요구하는 기초과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 성격인 학업성취 점수는 그 평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입학전형요소와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EET의 하위 영역 중 생물학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추론 1, 학부 전공계열, 일반화학, 유기화학, 일반물리학, 통계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추론 2, 연령의 4개 하위요인이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주는 변인으로 7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연과학추론1과 2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 전공이 생물계열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과학추론 1과 2를 포함하는 MEET 점수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높은 예언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위영역인 언어추론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1학년 교육과정이 자연과학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인문사회의학계열 교육과정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교과목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력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각 대학마다 전형요소와 그 반영비율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학제 개편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입시전략 수립 뿐 아니라 입학 후 학업성취도를 미리 예견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대학원 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전 지원체계의 구축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초의학 교육과정만을 이수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의 임상실습 또는 졸업 후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업능력 및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학과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하원 외(2002). 일개 의과대학에서 입학 시 특성에 따른 의예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14(2), 257-268.
- 박귀화(2004).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의 전형방법 비교**. 가천의과학대학교 학생면접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심우엽(1992). 추천교육대학 신입생 선택 기준의 타당도 분석. **교육학연구**, 30(2), 223-241.
- 안덕선 외(2000). 예과 입학성적, 졸업 총 평점, 의사 국가고시시간의 상관관계 및 성별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12(1), 91-96.
-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양은배(2001).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의학교육**, 13(2), 317-332.
- 의학전문대학원추진연구단(2003).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이유철 외(2003). 경북의대 의학과 학사편입 시행 경험. **한국의학교육**, 15(1), 1-10.
- 한운섭(1999). 학사 편입학 제도에 있어서 학생 선발 경험. **한국의학교육**, 11(2), 188-192.
- 허명희·전성연(1996). 입학선발지표와 대학학업성취도의 관련성. **교육학연구**, 34(5), 299-309.
- Clercq, L.D. et al.(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 previous tertiary education and course performance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at Newcastle University, Australia. *Education for Health*, 14(3), 417-426.
- Collins, J.P. et al.(1995). A structured panel interview and group exercise in the selection of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29(5), 332-336.
- Colliver J.A. et al.(1989). Using a standardized patient examination to establish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MCAT and undergraduate GPA as admissions criteria. *Academic Medicine*, 64(8), 482-484.
- Geffen, L.B.(1991). The case for graduate schools of medicine in Australia.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55(11), 737-740.
- Glick, S.M.(1994). Selection of medical students: the Beer-Sheva perspective. *Medical Education*, 28(4), 265-270.
- Grey, M.R. et al.(2001). How do Australian doctors with different pre-medical school backgrounds performs as interns? *Education for Health*, 14(1), 87-96.
- Hall, F.R., & Bailey, B.A.(1992). Correlating students' undergraduate science GPAs, their MCAT scores, and the academic caliber of their undergraduate colleges with their first-year academic performances across five classes at Dartmouth medical school. *Academic Medicine*, 67(2), 121-123.
- Hesser, A., & Lewis, L.(1992). Prematriculation program grades as predictors of black and other nontraditional students' first-year academic performances. *Academic Medicine*, 67(9), 605-607.
- James, D., & Chilvers, C.(2001). Academic and non-academic predictors of success on the Nottigham undergraduate medical course 1970-1995. *Medical Education*, 35(11), 1056-1064.
- Jones, R.F., & Thomas-Forgues, M.(1984). Validity of the MCAT in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first two years of medical schoo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9(6), 455-464.
- Kay-Lambkin F. et al.(2002). The influence of admissions variables on first year medical school performance: a study from Newcastle University, Australia. *Medical Education*, 36(2), 154-159.
- Lumsden, M.A. et al.(2005). Assessment of personal qualities in relation to admission to medical school. *Medical Education*, 39(3), 258-265.
- Meredith, K.E. et al.(1982). Subjective and objective admissions factors as predictors of clinical clerkship performance.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7(10), 743-751.
- Montague, W., & Odds, F.C.(1990). Academic selection criteria and subsequent performance. *Medical Education*, 24(2), 151-157.
- Peng, R. et al.(1995). Personality and performance of preclinical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29(4), 283-288.
- Rahbar, M.H. et al.(2001). Predictability of medical students' performance at the Aga Khan University from admission test scores, interview ratings and systems of education. *Medical Education*, 35(4), 374-380.
- Ramsbottom-Lucier, M. et al.(1995).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s' preadmission qualifications and medical school performances. *Academic Medicine*, 70(3), 236-239.
- Smith, S.R.(1998). Effect of undergraduate college major on performance in medical school. *Academic Medicine*, 73(9), 1006-1008.
- VanSusteren, T.J. et al.(1999). Do interviews re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edical school selection decision?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11(2), 66-74.
- Weinberg, E., & Rooney, J.F.(1973). The academic performance of women students in medical schoo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8(3), 240-247.
- Weiss, M. et al.(1988). Selection candidates for a medical school: an evaluation of a selection model based on cognitive and personality predictors. *Medical Education*, 22(6), 492-497.